

# 건설 투자의 지역 경제 비중, 어떻게 변하고 있나

—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산업의 위상 변화 분석 —

이 흥 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hilee@cerik.re.kr

본고에서는 건설산업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지역내 총생산액(GRDP :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대비 건설투자 비중의 시계열적 추이를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지역 건설투자의 지역경제 성장 기여율 추이를 분석하였다.

## GR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감소 추세

먼저, 1995년 이후 지역내 총생산액(GR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지역의 건설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

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건설투자 비중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다만, 울산, 인천 등의 지역이 타 지역과 다른 패턴을 보였는데, 울산은 2000~05년 동안 지역내 총생산액(GR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2006~07년 동안 동 비중이 급상승했고, 이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인천은 지역내 총생산액(GR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998년 이후 감소하다가 2002년 이후 재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 인천의 경우 송도 자유경제구역 및 신도시 개발 등이 건설투자 비중 재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1995~2009년 동안 지역내 총생산액(GR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지역별로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1995~97년 3년 동안의 비중 평균과 최근 3년 동안(2007~09년) 동안 비중 평균의 격차를 계산해 보았다.<sup>1)</sup>

그 결과, 전국적으로 대략 6.7%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감소폭이 큰 지역은 충남으로 16.4%p가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대전, 경기, 강원, 광주, 경북 지역 등이 전국 평균보다 감소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북, 전북, 전남, 서울, 부산 등은 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1) 1995~97년의 3년과 최근 3년의 건설투자 비중 평균을 비교한 이유는 건설투자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 급격히 감소하면서 구조적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기 이전과 최근의 건설투자 비중을 비교·분석하기 위함임.

경영 정보

GR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변화를 기초로 한 지역 구분

구분	1995~97년 평균(%)	2007~09년 평균(%)	차이(%p)	
전국	23.0	16.3	-6.7	
전국 평균 수준 이상 감소 (-16.0~-8.0%)	충남	34.0	17.6	-16.4
	대전	29.8	14.0	-15.8
	경기	30.1	19.4	-10.8
	강원	34.2	24.3	-9.9
	광주	25.4	15.9	-9.5
	경북	23.1	14.1	-8.9
전국 평균 수준 감소 (-7.0~-4.0%)	충북	25.6	18.3	-7.3
	전북	27.7	21.4	-6.2
	전남	26.2	20.2	-6
	서울	16.9	11.3	-5.6
	부산	21.1	15.6	-5.5
전국 평균 수준보다 감소폭 양호 (-3.0~+4.0%)	인천	25.3	21.0	-4.3
	제주	23.0	19.6	-3.4
	대구	17.3	16.6	-0.7
	경남	17.1	16.9	-0.2
	울산	7.7*	12.1	4.4

주 : \*는 1998년 울산의 건설투자 비중임

제주, 대구, 경남, 울산 등은 전국 평균보다 감소폭이 더 낮은 지역들이었다.

대부분 지역 14% 상회

지역내 총생산액(GRDP)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2009년 기준으로 서울과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동 비중은 1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의 지역에서는 지역내 총생산액(GRDP) 대비 건설투자의 비중이 20%를 상회하여 지역 경제에 대한

건설산업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은 건설투자 비중이 전국 평균(16.3%)과 유사한 지역이었으며, 서울과 울산은 건설투자 비중이 약 10%를 기록하였다.

한편, 지역내 건설업 생산액과 타 업종 생산액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2009년 기준으로 대전(6위), 부산(6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건설업의 생산액 순위가 5위 안에 들며, 건설산업 위상이 아직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건설 투자의 성장 기여율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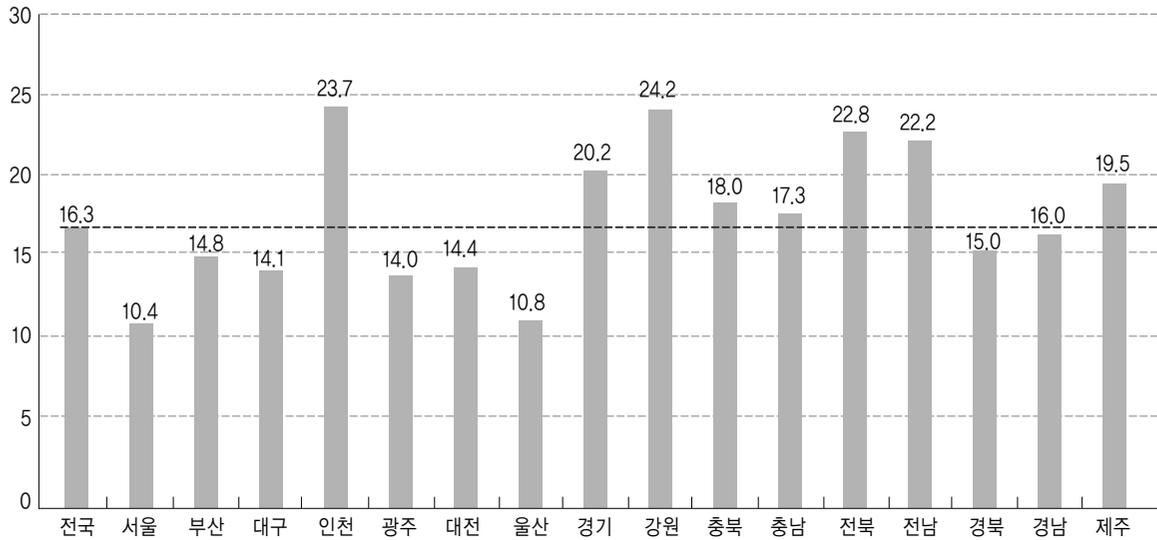
이렇게 지역 경제에서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 높은 상황에서 최근 지역내 건설투자가 부진함에 따라 지역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건설투자의 지역경제 성장 기여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건설 투자의 지역경제 성장 기여율이 최근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총생산액(GRDP) 성장에 대한 건설투자 기여율은 2000~04년 동안 전북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플러스(+) 기여율을 기록하였으

2) 통계청이 발간하는 지역소득 통계 자료에 포함된 지역소득 계정상의 17개 업종 분류 기준임.

GR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2009년 기준)

(단위 : %)



나, 2005~09년 동안은 서울, 부산, 기여율을 기록하였다. 여율보다 2005~09년 동안 동 기여 대구, 광주, 대전, 강원, 경북, 경남, 2000~04년 동안 지역내 총생산 율이 상승한 지역은 전남, 전북, 인 제주 등 9개 지역에서 마이너스(-) 액(GRDP) 성장에 대한 건설투자 기 천, 울산, 충북 등에 불과하였다.

지역별 건설투자의 GRDP 성장 기여율 추이

(단위 : %)

구분	2000~09년	2000~04년	2005~09년
전국	11.2	16.7	4.6
서울	0.0	18.5	-22.4
부산	7.3	34.6	-43.9
대구	-1.1	6.5	-22.3
인천	24.3	-4.4	55.4
광주	2.9	13.2	-10.2
대전	-6.2	12.5	-46.1
울산	21.7	13.0	41.5
경기	14.4	17.9	10.8
강원	16.1	32.4	-10.0
충북	14.4	3.5	29.3
충남	12.9	19.0	9.2
전북	20.3	-4.0	46.8
전남	34.2	18.8	51.1
경북	7.0	11.2	-3.9
경남	12.7	25.0	-2.7
제주	11.2	30.8	-37.8

주 : 지역별 건설투자의 GRDP 성장 기여율 = (∑매년 지역별 건설투자 증감액/∑매년 지역별 GRDP 증감액)\*100.

경영 정보

지역별 건설투자의 전년 대비 증감률 추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국	-0.3	7.2	9.2	7.6	1.0	0.4	1.4	2.7	-3.7	4.1
서울	-2.7	9.0	14.8	5.9	-0.3	-7.5	-4.5	-1.1	-5.1	-6.1
부산	2.7	16.5	8.4	10.3	4.9	-0.5	-10.1	-2.4	-5.2	-6.5
대구	-0.1	1.5	19.2	2.7	-13.9	8.8	10.6	3.4	-6.3	-21.0
인천	-19.1	-11.6	17.5	5.1	7.3	12.6	3.6	19.5	-5.0	23.8
광주	4.8	-7.2	2.2	13.4	4.9	5.8	14.1	-6.8	-4.8	-15.4
대전	-9.7	-2.4	11.9	20.1	-1.9	-4.0	-4.7	-20.1	-2.9	6.7
울산	8.3	19.4	8.9	14.7	-7.9	5.0	31.4	34.4	-11.5	-11.1
경기	11.1	6.5	9.0	3.0	1.1	2.3	-0.9	4.3	-2.0	11.4
강원	-0.2	-0.6	11.0	20.0	-3.4	-1.7	9.5	-4.5	-13.2	7.4
충북	4.3	2.9	-3.7	5.5	-3.3	19.5	11.3	3.2	-13.3	10.6
충남	-3.5	6.5	-5.5	23.2	18.0	8.2	1.3	-1.6	8.3	5.5
전북	-1.1	8.5	-6.4	6.8	-10.0	9.6	14.8	-8.1	12.9	4.9
전남	-7.8	14.2	9.8	-1.1	3.7	4.1	1.2	12.8	-1.9	19.6
경북	-5.9	15.2	7.0	9.6	-2.2	-6.9	4.7	-6.2	0.1	6.3
경남	-6.8	14.1	14.3	9.6	5.8	-5.3	1.6	12.4	-8.6	-1.4
제주	12.2	6.8	2.5	12.5	5.2	-9.2	-4.3	3.2	-14.7	10.6

자료 : 지역소득 통계, 통계청(2005년 불변금액 기준).

2000~04년 대비 2005~09년에 지역내 총생산액(GRDP) 성장에 대한 건설투자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인천과 전북 지역이다.

인천의 경우 송도 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아시안게임 준비 등을 통해, 그리고 전북은 새만금 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 투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들이다.

**급격한 건설투자 감소 바람직하지 않아**

최근 들어 건설 투자의 지역내 총생산액(GRDP) 성장 기여율이 하락

한 원인은 지역별로 건설 투자의 연관산업 생산유발효과가 과거에 비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은 가운데, 지역별 건설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 부산의 건설 투자가 2005년 이후 5년 연속 감소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다수 지역의 건설 투자가 2005년 이후 2~4개 연도 동안 전년 대비 건설투자가 감소하였다.

2005~09년 동안 건설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가 한 해뿐인 지역은 인천, 충북, 충남, 전북, 전남뿐이었다.

2010년에도 전국적으로 건설 투자가 전년 대비 1.4% 감소했고, 2011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9.0% 감소하며 부진했기 때문에 지역내 총생산액(GRDP)에 대한 건설 투자의 성장 기여율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2010년 이후에도 매우 부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경제에서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는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지역 경제의 침체 방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와 함께 지역 건설투자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 마련 및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CERIK